



지난 10월 광주시 남구 수춘마을에 문을 연 노의웅미술관. 노 화백의 작품이 상설전시되는 미술관을 방문하면 그림 감상과 함께 작가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다.

“시골 갤러리 오세요, 직접 내린 커피 덤입니다”

광주 수춘마을에 '노의웅미술관' 연 노의웅 화백

작업실·수장고·살림집·차 공간 갖춰
중학생 때 그린 유화 등 3천여점 전시
대관 앓고 아내·딸·사위 작품도 소개
“관람객과 대화·작업실 공개 행복하죠”



'구름천사'로 유명한 노의웅 작가와 갤러리·차 마시는 공간 등을 갖춘 노의웅미술관 전경.



올해 일흔 여섯의 노의웅(전 호남대 교수) 화백에게는 늘 풀고 있던 꿈 두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고등학교 시절 은사로 '함께 그림을 그리는 동료이자, 후원자, 든든한 인생 선배'였던 고(故) 김은수 선생의 유작전을 여는 것이었다. "단 한번도 그 분을 잊은 적이 없었던" 그는 지난해 흠어져 있던 작품을 모아 '김은수 유작전-그리움'을 개최, 은사와 인연을 맺었던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초청장을 전달하고 함께 그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스로에게 했던 오랜 약속을 지킨 셈이다.

평생 마음에 담았던 또 하나의 꿈은 미술관 개관이었다. 노 화백은 지난달 말 드디어 소원을 이뤘다. 광주시 남구 대촌동 수춘마을에 '노의웅미술관'(광주시 남구 수춘안길 7)을 오픈하고 매일 찾아오는 관람객들과 차 한잔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포천시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미술관은 조용한 시골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30여평 규모의 미술관과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작업실, 수장고를 갖췄다. 바로 옆에는 노 화백 내외와 딸 미화씨 내외의 살림집이 함께 붙어 있다. 최재창 선생이 제작한 동판에 노 화백이 직접 글씨를 쓴 미술관 현판 아래 '노의웅 임순임' '노미화 임희성' 두 개의 문패가 걸린 이유다.

단정하게 꾸러진 공간에 노 화백의 2018년 신작 20여점이 걸려 있다. '구름천사'로 잘 알려진 그의 작품들은 밝고 화려한 색감과 동화같은 화면 구성이 특징으로 관람객들이 부담없이 편안함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다.

갤러리 맞은편에는 작업실, 수장고와 함께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노 화백은 미술관에 찾아온 관

람객들에게 항상 차 한잔을 권한다. 커피 머신으로 직접 커피를 내리고, 집에서 담근 오래된 발효차도 내놓는다. 이 순간이 그가 가장 행복해하는 때다. 미술관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정표를 보고 '우연히' 들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 역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간다.

"제 오래된 소원이 미술관을 오픈하는 것이었어요. 좀 더 빨리 열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죠. 드라이브를 왔다 들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루에 20명 정도 오시는데 저와 여유있게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는 시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가와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작업실이 바로 옆에 있으니 작업 공간을 보는 것도 좋아하시구요. 저에게도 참 흐뭇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노 화백은 당초 시내 쪽에 미술관을 오픈하려 했다. 하지만 땅값도 만만치 않고 적당한 곳을 찾기 어려워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우연히 현재 미술관이 들어선 공간을 발견했고 바로 계약을 한 후 올 3월 착공해 10월말 문을 열었다. 아버지의 오랜 꿈을 알고 있던 딸들도 힘을 보탰다.

노 화백은 미술관을 개관하며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대관을 하지 않는 것과 유료 판매 등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후 미술관 운영을 할 딸들에게도 다짐을 받아냈다. 갤러리에는 노 화백의 작품이 교체 전시된다. 개인전을 열지 않았던 그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3000여점에 달한다. 중학교 시절 캔버스 대신 종이 장판 위에 처음 그렸던 유화작품을 비롯해 자신의 그림 역사가 담긴 '거의

모든 작품'을 그는 소중히 보관해 왔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집을 옮긴 게 처음이예요.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 그렸던 작품부터 자연스럽게 차곡차곡 쌓이게 된 셈이죠. 오롯이 제 그림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2-개월에 한번씩 새 그림을 걸 생각입니다."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화가 남편을 만나 30년 넘게 그림을 그렸고 함께 '부부전'도 열었던 아내 임순임씨 작품,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현재는 미술교사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두 딸, 서예를 배운 사위 등의 작품도 함께 전시할 생각이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노 화백은 호남대 예술대학장을 역임했으며 일본예술공론상, 오지호미술상을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프랑스 라망시청 초대전 등에 참여했고 현재 정동화·목우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제 고향 서방이 그 때는 광산군 서방면이었어요. 어릴 때 들뜬에 누워 바라본 하늘이 도화지였습니니다. 한참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보고 있으면 토끼도 지나가고, 순이도 지나갔죠. 수도 없이 하늘에 그림을 그렸으니, 그곳이 바로 미술학교였던 셈이죠."

전시실 입구에 걸린, 작가가 직접 쓴 글 '구름천사'를 읽으면 그의 작품이 좀 더 가까워지는 기본이 된다. 노(老) 작가에게는 자신의 그림을 보고 작은 위안을 얻으며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관람객들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듯했다.

월·화요일 휴관. 문의 010-6383-5555.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각양각색’ 풍경들

한국화 여류화가회전 8~21일 예술의 거리 향담갤러리

한국화 여류화가회(회장 추순정) 20번째 전시회가 8일부터 21일 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향담갤러리에서 열린다.



추순정 작 '오월향'

‘각양각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 풍광, 국화·해당화·모란·들국화·유채 등 계절 따라 피어나는 다채로운 꽃, 늘 푸른 소나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황혼녘 풍경 속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 단풍 지는 날 가족의 나들이 모습 등도 전시됐다.

박미녀·국경화·기경숙·김금옥·양정숙·이화주·지숙자·한경자·정평남 작가 등 모두 30여명의 회원이 작품을 출품했다. 김은자 작가는 벌교의 갯벌에서 일해 열중인 노인들의 모습을 담은 '날매'를

선보이며 정평남 작가는 부채에 채색으로 그린 '세월을 닦으며'를 전시한다. 지난 1995년 남도예술회관에서 박경례·주점화·국경화 작가 등 13명의 회원이 참여, 창립전을 연 한국화 여류화가회는 매년 전시회를 열고 있다. 문의 062-266-12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에 대한 갈망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첸 20일까지 윤보연전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첸 레지던시 작가 윤보연 개인전이 오는 20일까지 열린다. '내면의 가치'를 주제로 전시회를 여는 윤보연 작가는 세상이 과학기술, 첨단으로 치달을수록 전통에 대한 향수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전통자수를 시작했다. 작가가 한 바늘, 한 바늘 손수 놓는 자수는 전통에 대한 갈망이자 시간을 거슬러 가는 추억여행이며 세월에 대한 향수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사시사철 풍경을 수놓은 병풍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세시풍속'

이번 전시는 2018 공간연계형 창작지원사업 '공예운동 보임첸하우스' 릴레이 전 두번째 기획전이다. 문의 061-383-647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민족미술인협회, 10일 오월전 작품 발굴 토론회

광주민족미술인협회(회장 김정환)는 올해 5·18 역사 기록 작품 조사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 차례 탄압을 겪으면서도 광주시민들에게 위로와 용기, 희망과 치유, 감동을 전했던 오월전 미술작품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위해서다. '30년간의 오월전 작품 발굴·조사 및 2차 학술토론회'가 오는 10일 오후 3시 5·18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박철우 조사장단의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최병진 발굴·조사 기획팀장의 '30년간의 오월전 작품 1차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에 이어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전문위원이 '오월전으로 돌아온 광주 시대 정신', 윤정현 활동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오월전 30년사 아카이브'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서는 정희승(전 광주·전남미술인 공동체 회장), 조정태(전 광주민족미술인협회장), 한현우(광주민민협 회원) 작가가 참여한다. 문의 062-236-0518. /김미은 기자 mekim@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시공전 시공후

원룸건물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